

**CEO 동정**

**수도권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월 12일 수도권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선릉역, 강남구청역 등 개통구간을 점검하고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하였다.

**철도의 날  
기념식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월 18일 공단 사옥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13회 철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산업**

**최고경영자과정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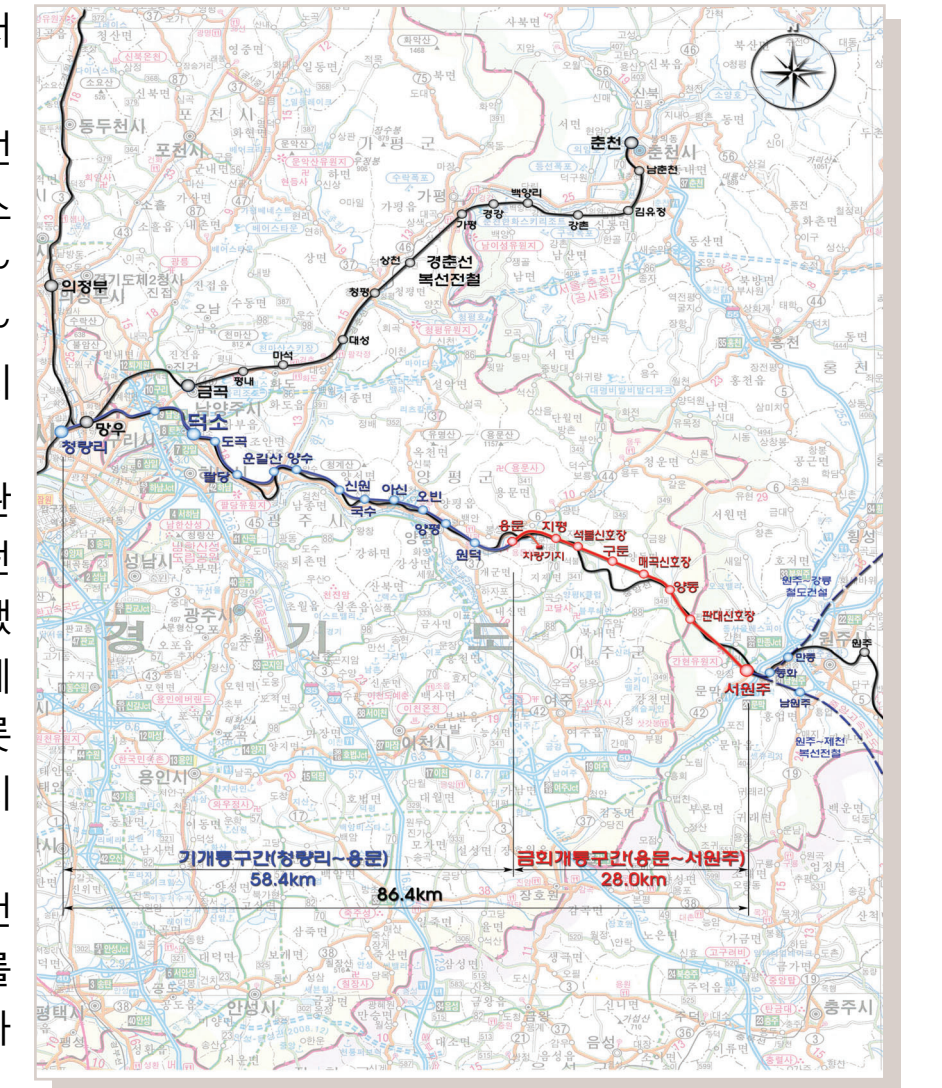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9월 19일 철도산업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철도산업의 현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중앙선 용문~서원주간 복선전철 개통**

- 청량리~원주 35분 단축... 1시간이면 도착 -

공단은 지난 9월 25일 원주역에서 중앙선 용문~서원주간(28km) 복선전철사업의 개통식을 가졌다. '97년 10월 착공한 중앙선 청량리~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은 '05년 12월 청량리~덕소, '07년 12월 덕소~팔당, '08년 12월 팔당~국수, '09년 12월 국수~용문간을 단계적으로 개통했고, 올해 9월에는 용문~서원주간을 개통함에 따라 청량리에서 서원주까지 86.4km 전 구간을 복선전철로 개통하게 되었다. 총 2조 68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이 완공됨으로써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1시간 35분 걸리던 운행시간은 35분 단축돼 1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선로용량도 51회에서 136회로 늘어나 수송수요에 따라 열차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되어 원주를 비롯한 강원 서남부지역의 수도권지역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중앙선 원주이남 구간인 원주~제천\*(44.1km), 도담~영천\*\*(148.1km)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주~제천 복선전철 : 사업기간 2003~2018, 사업비 9,771억원  
\*\* 도담~영천 복선전철 : 사업기간 2010~2018, 사업비 36,474억원



**'제113주년 철도의 날'  
세계 일류철도 도약 다짐**



'제113회 철도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18일 공단 사옥 2층 대강당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을 비롯하여 공단 이사장(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교통대학 총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철도산업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주성호 차관은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철도투자를 교통 SOC의 50%까지 늘려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 친환경 저상트램과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첨단 철도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성호 차관은 철도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13명의 유공자들에게는 정부포상을, 철도운전무사고 기관사 등 155명의 현업근로자들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정부포상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과 공단 경영지원안전실 이계환 실장이 각각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13명이, 한국철도공사 무사고 기관사 25명 등 총 155명이 국토해양부장관표창 추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교통대학과 공동주관으로 '열차무인운전과 안전', '철도물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철도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학술포럼에는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권구포 CJ GJS 기술연구센터장, 이광희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장 등 국내외 철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였다.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대전도심 현장 방문**

- 성공적 사업 마무리,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 -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지난 9월 7일 대전도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김한영 실장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운행선 인접 공사시에는 열차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할 것"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개통일정 준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충청본부 관계자는 "지역현안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청본부 임상민 기자)



**추석 '이웃사랑 나눔활동' 실천**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노인복지관 배식봉사활동 전개 -

공단(김광재 이사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4일 대전 중구 사랑의 먹거리나눔운동본부와 동구 다기능노인복지관을 찾아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벌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사랑의 먹거리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했다. 또 동구다기능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쌀, 된장, 고추장, 소고기 등을 제공하고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점심 배식봉사를 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소외이웃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우리 공단은 소외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추석명절을 맞아 본사와 5개 지역본부별로 장애인, 독거노인, 소외계층 아동 등 10개 소외기관 및 지역 사회 소외가정(450여 가구)을 찾아 식자재 등 필요물품과 온누리상품권(총 175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추석 나눔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쳤다.



**추석명절 건설현장 임금체불 235억원 해소**

- 특별점검팀 구성, 전국 127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집중점검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27개 철도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 대한 특별점검(9월10일~14일)을 시행하여 임금 및 대금체불 총 23건을 적발하고 체불금 235억원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3건은 대부분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가 장비·자재공급대금에 대해 약 197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전체 체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8억원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235억원에 대하여 원도급사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0여명의 현장 근로자와 20여개의 장비·자재업체에게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임금 및 대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감리단,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기획혁신본부 임영주 기자)

